

농구대표 박지수 “리우올림픽 진출 혼신”

분당경영고 2학년 재학 중
195cm 센터로 차세대 재목
낭트대회서 5위 내 들어야

여고생 농구 국가대표 박지수(18·분당경영고·사진)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진출을 위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수는 195cm의 큰 신장을 자랑하는 센터로 차세대 한국 여자농구를 이끌 재목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대한농구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여자선수 부문)을 받았다.

현재 분당경영고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여고생 국가대표로 뛰었다. 3학년 진학을 앞둔 그에게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리우올림픽 본선 진출과 프로 데뷔다.

여자농구는 1984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한국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은메달을 안긴 종목이다. 2000시드니올림픽에서도 4강에 오르며 세계 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4년 전, 2012런던올림픽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했다. 2008베이징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여자대표팀은 지난해 9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에 머물러 본선 티켓을 따는데 실패했다. 대신 최종예선 진출 자격을 얻어 올해 6월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올림픽 최종예선에 나선다. 최종예선에서 상위 5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성인대회를 처음 경험한 박지수는 “지난 해에는 처음이라서 내가 잘 몰랐다. 아쉬움이 남지만 많이 배웠다”며 “올림픽 최종예선 대표팀에 뽑힌다면 지난해 아쉬움을 씻고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진짜 감자도 만났다. 아시아 최고 센터로 불리는 일본 도카시키 리무(25·192cm)의 높이와 위력을 절감했다. 일본은 이미 리우행 티켓을 따다.

그는 “기술도 대단하지만 스피드와 탄력도 따라가기 힘들었다. 경기력 외에도 나오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대단한 선수였다”고 했다.

한국은 최종예선 조별리그에서 나이지리아, 벨라루스와 한 조에 속했다.

박지수는 “최종예선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선수로서도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최종예선을 통해 올림픽에 가고 싶다”고 했다.

박지수는 지난해 19세 이하(U-19) 대표팀에도 선발돼 아시아선수권을 앞둔 7월에 세계선수권대회에 다녀왔다. 여기서 허벅지와 발목 부상을 당해 정작 성인대표팀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박지수는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고 짧게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때, 10살이었던 박지수는 한국 여자농구가 올림픽에서 뛰는 것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호기심과 의지가 더 크다.

최근 웨이트트레이닝을 위주로 한 동계 훈련을 소화했다.

박지수는 “학교 선생님께서 뛰는 시간은 조절해 주신다. 대신 웨이트 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홀모델은 양지희(32·우리은행)와 배혜윤(27·삼성생명),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의 캔디스 파커(30·LA 스파르스)를 꼽았다.

다음달 3학년이 되는 박지수는 올해 여자프로농구(WKBL) 드래프트도 앞두고 있다. 유력한 1순위 후보다.

박지수는 “요즘 드래프트 꿈을 많이 꾀다. 꿈에서 매번 팀이 바뀐다”며 “벌써부터 긴장이 많이 된다”고 했다.

박지수는 현역 시절 삼삼에서 댄 박상관(47) 전 명지대 감독의 말로 잘 알려졌다.

“집에서 농구와 관련해선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농구는 선생님에게 배워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다”고 했다.

/김민근기자

KBL, 인기상 팬투표 실시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1일부터 정규리그가 종료되는 21일까지 팬들이 선정한 2015~2016 KCC 프로농구 ‘게토레이 인기상’ 투표를 진행한다.

인기상 투표는 KBL 등록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총 2명에게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 소속팀 선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

또 올 시즌 최고의 치어리더 팀을 선정하는 ‘게토레이 베스트 치어리더팀’ 투표도 시행한다. 팬 투표 50%, 구단 사무국 투표 50%로 결정된다.

두 항목 모두 매일 1회씩 투표가 가능하며, 결과는 22일 열리는 2015~2016 KCC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KBL 공식 웹사이트(www.kb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송영한, 세계1위 스피스 꺾고 싱가포르오픈 우승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이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28·미국)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송영한은 1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파71·7388야드)에서 속개된 아시아인 골프 투어 SMBC 싱가포르오픈(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전날 최종 라운드에서 송영한은 15번홀까지 2위 그룹에 2타차 선두를 유지하던 중에 악천후 때문에 경기를 멈춰야 했다.

이튿날 송영한은 앞서 스피스가 18번홀에서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1타차로 따라붙은 상황에서 잔여 라운드를 시작했다.

세계랭킹 1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담이 될 법도 했지만 3홀을 모두 파세이브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민근기자



존 테리, 22년 정든 첼시 떠난다

첼시의 살아있는 전설 존 테리(36·사진)가 22년간 정든 유니폼을 벗는다. 1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리는 올 시즌을 끝으로 첼시를 떠난다.

결정은 구단이 내렸다. 첼시는 지난 25일 열린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직전 테리에게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테리는 “지난 주 아스널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도중 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당시 재계약 무산 통보에도 테리는 풀타임 활약하며 첼시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이상적으로 나는 팀에 머물고 싶었지만 구단의 결정은 달랐다. 매년 1월이면 (재계약율)체결했으니 이번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실이지)동화가 아니다. 나는 첼시에서 은퇴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테리가 처음 첼시 유니폼을 입은 것은 첼시 유소년 팀에 입단한 만 14세 때였다. 17세에 불과한 1998년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2004년 처음 주장을 맡았다.

첼시에서만 통산 896경기에 출전 700경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1세기 첼시가 맞은 영광의 순간에는 언제나 테리가 있었다. 그는 첼시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우승 5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무수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첼시와의 결별이 공식화되면서 테리의 차기 행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리는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수는 없다. 정확히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첼시에 대한 애정이 식지는 않았다.

그는 “구단은 (나 없이도)계속 잘해갈 것이다. 어떤 선수도 팀보다 크지 않다”며 “첼시는 하나 또는 둘의 대단한 센터백을 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년 내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첼시의 서포터스로 돌아와 대단한 모습의 팀을 보겠다. 비록 나는 그곳에 없지만 팀이 잘 되는 것을 꼭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첼시는 이날 오전 1시에 열린 밀턴 케인스 문스와의 FA컵 32강전에서 오스카의 헤트트리에 힘입어 5-1로 승리했다.

테리는 중앙 수비수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김민근기자

‘그린 9번째 트리플더블’ GSW, 뉴욕 꺾고 7연승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신의 시즌 9번째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드레이몬드 그린의 활약으로 뉴욕을 제압하고 7연승을 달렸다.

골든스테이트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닉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15-97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골든스테이트는 7연승을 올리며 시즌 44승4패(승률 0.917)를 기록했다. 1995~1996시즌 시카고 불스가 역대 한 시즌 최다승(72승10패)을 기록할 당시 개막 후 48경기에서 43승패였다.

골든스테이트는 같은 기간 더 많은 승리를 챙기며 시카고의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승리의 주역은 유력한 MVP후보 스테픈 커리가 아닌 그린이었다. 그린은 이날 경기에서 3점슛 2개 포함 야투 9개를 던져 모두 성공시키는 등 20득점과 함께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각 10개씩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다.

이전 시즌까지 단 1번의 트리플더블을 달성하는 그쳤던 그린은 이제 시즌 반환점을 돌았을 뿐인데 벌써 9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만개한 기량을 뽐냈다.

테리는 중앙 수비수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김민근기자



LetsRun FARM 장수 (구.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영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영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Run FARM 장수